친정 강화 국정 드라이브

세대교체·소통·친서민 '3대 기조' 반영

광주·전남 출신 발탁은 1명에 그쳐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취임 이후 최대 규모의 개각을 단행했다. 국무총리 교체 외에 16개 부처 장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명을 바꿨고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과 중앙노동위원장까지 포함하면 9명의 장관을 새 얼굴로 채웠다.

이는 지난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제기된 국정쇄신 요구에 부응하고 분위기를 일신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유임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의 발탁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1명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일단 '제3기 내각'의 성격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3대 국정운영 기조와도 일치한다는 평가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강조한 ▲여권 세대교체 ▲소통 및 국민통합 강화 ▲친(親)서민 중도실용 강화의 '3대 기조'가 이번 개각에 그대로 반영됐다.

우선 여권의 세대교체는 40대인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전격 지명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김 후보자의 전격 발탁은 '40대 기수론'에 불을 지피면서 차기 대권구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50대 후반인 박근혜 전 대표의 독주 체제였던 대권 구도에서 김 후보자가 급부상하면서 기존에 젊은 색깔을 내세워왔던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함께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통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계층 간의 통합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도 담았다. 우선 세대교체를 통해 '젊은 층'과의 소통, 세대간 화해와 협력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여기에 '서민을 위한 정치'를 강조하는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도 3기 내각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다양화하면서 '소통과 통합' 색채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또 새로 내정된 부처장관 7명 가운데 현역 의원이 3명, 전직 의원이 2명이나 포함된 것은 지난 청와대 개편 당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정진석 정무수석을 전격 발탁한 것처럼 여의도와의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표의 최측근인 유정복 의원을 내각에 전격 발탁한 점은 '탕평 인사'의 의미와 함께 여권 화합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3기 내각은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친서민 정책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이다.

우선 김 총리 후보자는 자신을 '촌놈'으로 부를 만큼 서민의 애환을 잘 알고 있어 친서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통해 '친정체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과 경선캠프 대변인을 지낸 진수희 의원, 청와대 참모였던 박재완 전 국정기획수석과 이주호 전 교육과학문화 수석을 발탁함으로써 후반기 국정 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39년만의 40대 총리…세대교체 신호탄

차기 대권구도 변화…3기 내각도 젊어져

김태호(48)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변이 없는 한 대한민국 헌정 사상 다섯번째로 '40대 총리'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1971년 김종필 전 총리가 45살의 나이로 11대 총리에 오른 지 39년 만에 40대 총리 탄생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이는 3공화국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40대 기수론'에 불을 지피며 향후 대권 구도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8년 고향인 경남 거창에서 초대 도의원을 지낸 뒤 2004년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최연소 도백(42세)'에 당선됐으며 이후 가볍게 재선에 성공, 정치권의 차세대 주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3선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 올해 초 갑작스럽게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결국 40대 총리로 내정됨에 따라 정치적 평가를 또 한 단계 끌어올렸다.

김 후보자는 이번 총리 지명으로 명실상부한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렸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보다 더 젊은 이미지를 통해 여권 세대교체의 선두주자로 부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김 후보자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말끔히 씻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개각으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3기 내각은 앞선 1, 2기보다 젊어졌다. 현정부 출범 당시 60세가 넘었던 내각의 평균 연령은 2기에서 59세로 떨어졌으며, 이번에는 58세로 더 내려간 것. 신임 총리 및 국무위원의 평균 연령은 54세로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65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40~50대로 채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임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서울 종로 자신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

신임 총리·장관·차관급 내정자 프로필

김태호 총리 농고 출신 최연소 도백 지낸 차세대 리더

이미 몇년 전부터 여권의 '차세대 리더'로 손꼽혀 온 촉망받는 정치인이다. 지난 1998년 고향인 경남 거창에서 초대 도의원을 지낸 뒤 2004년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최연소 도백(42세)'으로 당선되면서 정치권을 깜짝 놀라게 했다. 신선한 사고와 깨끗하고 젊은 이미지, 강단있는 지도력을 인정받으며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잠룡'으로 거론되는 등 정치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고, 2008년 지방선거에서도 가볍게 재선에 성공하며 승승장구했다. 올해 초 갑작스럽게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입각을 제의받았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가난을 이겨낸 성장 과정이 이명박 대통령의 성장 과정과 비슷하다는 얘기가 많다. 서울대 재학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고(故) 김동영 전 의원의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정치에 대한 감각을 키웠다는 후문이다. 부인 신옥임(46)씨와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특기는 태권도, 취미는 바둑이다. 존경하는 인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경남 거창(48) ▲거창농림고 ▲서울대 농업교육과 ▲동 대학원(교육학 박사)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시 친선대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사회정책실장 ▲경남도의원 ▲경남 거창군수 ▲경남도지사(재선)

이주호 교과 MB정부 교육정책 설계자

자율과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설계자'로 불린다. 새 정부 초기 교육개혁을 주도하다 교육계의 저항에 부딪혔으나 작년 1월 '실세 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입성해 교육정책 집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구(49)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17대 국회의원 ▲대통령직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교과부 제1차관

신재민 문화 직언 마다않는 개혁소장파

아이디어가 많고 달변으로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해 소신 발언을 자주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언도 마다하지 않아 '강골'로 분류되는 여권 내 소장개혁파다.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 시절이던 1990년대 후반,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친분을 쌓았다. 작은 정부, 규제 최소화 등에 강한 소신을 갖고 있다. ▲충남 서천(52) ▲서울대 정치학과 ▲한국일보 사회부장·정치부장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정무 · 기획1팀장 ▲문화부 1차관

유정복 농림 친박계 핵심 재선의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실장 역할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꼽혀온 재선 의원이다. 정통 내무관료 출신. 지난 세종시 정국 때에는 지역구가 수도권임에도 대외적으로 원안추진 논리를 적극적으로 설파, 친박계의 세종시 문제 정면대응에 앞장섰다. ▲인천(53) ▲연세대 정외과 ▲행시 23회 ▲인천시 서구청장 ▲경기 김포군수 ▲김포시장 ▲제 17·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이재훈 지경 정통 산업·통상 전문가

참여정부 때 산업자원부 2차관이었다가 새 정부 들어 지식경제부가 출범하면서 2차관으로 다시 기용됐을 만큼 자타가 공인하는 정통 산업·통상정책 전문가다. 영어에 능통하며 통상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광주(55) ▲광주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통상산업부 미주통상담당관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산자부 제2차관 ▲지경부 제2차관

진수희 복지 추진력 뛰어난 여성의원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의 핵심이자 사회학 박사 출신의 재선 여성 의원. 2004년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원내에 입성한 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서울 성동갑에서 당선했다. 온화하고 합리적이면서 집중력과 추진력을 발휘해왔다는 평이다. ▲대전(55) ▲연세대 사회학과 ▲미 일리노이대 사회학박사 ▲국회 여성정책포럼 대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17대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위 간사 ▲17,18대 국회의원

박재완 노동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

박형준 전 정무수석,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 함께 이른바 '청와대 순장 3인방'으로 불렸던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국정기획수석을 맡다 지난달 16일 청와대 인사에서 물러난지 20여일만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경남 마산(55)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정책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대표비서실장 ▲이명박 정부 초대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이재오 특임 MB정부 탄생 일등공신

30여년간 민주화 운동을 한 재야 출신 인사로, 이명박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 본선 때 이명박 캠프의 좌장을 맡으며 최고 실세로 부상했지만, 4·9총선에서 낙선해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며 지난 7·28 재보선을 통해 화려하게 컴백했다. ▲경북 영양(65) ▲중앙대 경제학과 ▲한나라당 사무총장 ▲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국민권익위원장 ▲18대 국회의원

정종수 노동위장 정통 노동 관료 출신

고용노동부 주요 보직을 두루 섭렵한 정통 노동 관료로 꼽힌다. 고용부 업무의 양축인 노사정책과 고용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동 관련 소송 현안을 무난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충북 옥천(57) ▲대전고·충남대 법학과 ▲노정과장 ▲노사협력관 ▲교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인적자원개발국장 ▲노사정책국장 ▲고용정책본부장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차관

임채민 총리실장 지경부 안착 핵심 역할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지식경제부 1차관을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 현 정부 들어 구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기능이 합쳐져 탄생한 지식경제부가 초기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서울(52) ▲서울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경제학 석사, 경희대 경제학 박사 ▲산업자원부 공보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중소기업특별위 정책조정실장 ▲지식경제부 제1차관.

이현동 국세청장

대표적인 기획·조사 세무통이다. 전임 백용호 청장 때 국세청 차장으로' 국세청 개혁'을 이끌어왔다. ▲경북 청도(54) ▲영남대 행정학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정선태 법제처장

법·제도 관련 업무와 법무행정에 해박해 법제처장으로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54) ▲경기고, 서울대 법대 ▲제24회 행정고시 ▲제23회 사법시험 ▲대검찰청 형사과장 ▲대구지검 1차장